**9월 기도제목**

1. 동역자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을 주께 의뢰합니다. 이곳은 하루에 환자가 1,700여명 발생하는데 확산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 도시에 환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집 주인 할아버지는 코로나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달에 연락했더니 지금은 후유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에 한번 투석을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교제하는 H부인의 친척들도 여러 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변에 환자가 많다는 소식에 주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3. 2020년 첫 한식 강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수강생들에게 여기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은 택배로 보내줄 준비와 한식실이 지하에 있어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1층 카페테리아에서 저녁 6시부터 수업을 할 것입니다. 조리도구와 재료들을 옮기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U 부인이 보조 강사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 수업이라 전국에서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이 강좌를 위해 주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지금은 파송 단체가 다르지만 A국에서부터 동역자였던 가정과 1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아침 이른 시간에 호수 주변을 1시간 정도 걸으며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하는 외출입니다

영혼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겨울을 지내야 할 상황을 예상하면서, 후원자 동원과 어머니 부양 및 건강검진과(비염, 치과 치료….) 향수병 등의 목적으로 입국 예정 계획은 국적기가 취항하는 시기와 국내에서 격리하는 기간과 장소 등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1.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때때로 세상을 따르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전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고,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잊지 않고 땅끝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기를 마6:6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합니다.